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

- 10월 25일 -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나는 너희를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라고 부른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평화와 기쁨을 증거하라고 선택되었단다. 평화가 없는 곳에 너희가 기도를 하면 평화가 오리라. 나의 자녀들아, 세상에는 너희와 너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평화가 넘쳐 흐르기 시작하리라. 그러므로 나의 자녀들아, 기도가 세상 안에서 그리고 인간들의 마음 안에서 기적을 이루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며 또 기도하여라.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며 기도를 진지하게 받아드리고 생활화 하는 너희들 각자를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있단다.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어 고맙다.



성체성사의 친구인 사제

부활 뒤 고기잡이의 기적을 아는가? 제자들은 물고기의 숫자가 153 마리 었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모든 사제 소명은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표시이다. 물고기들은 성체성사의 표시이다. 항상 성체성사를 볼 때, 우리에게 “오른 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이다. 이렇기 때문에 사제는 ‘거룩한 몸’ 을 들어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성체성사는 마음과 눈을 열어 준다. 예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맹수들의 먹이가 되거나 감옥 혹은 박해를 감수할 수 있는 두려움이 없는 이들이다. 우리 모두는 부활을 증언하지 않은 그리스도를 반대한 죄인들이다. 우리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 보아야만 속이 시원한 토마같은 이들이며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제대 위에 올려놓는 표시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메주고리예의 성모님께서는 고해성사가 무엇인지 아주 정

# 메주고리예

Medjugorje

제11호

December, 2001



발행인 : 김한기 시몬 신부 편집인 : 남홍익 그레고리오

평화의 모후 센터 U.S.A.

확하게 보여 주셨는데, 이 성사는 인간이 자신의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성체성사도 이와 같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듯이 가톨릭 교회에서 행하는 것처럼 원하셨다. 여덟 명의 영국 사제들이 메주고리예를 찾은 적이 있었는데 이들은 교황성하로부터 가톨릭 사제로 인정받은 사제들이었다. 이들 여덟 명 모두는 우리 본당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내게는 제대와 감실이 없었다.” <본지 5페이지에서 계속>



## 성모님을 통한 완전한 봉헌



박효철 신부  
캔사스 한인 성당 주임

‘불확실성의 시대’ 라는 말이 실감나게 와 닿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밤과 어두움이 깊어질 수록 빛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져가는 법입니다. 테러와 폭력이 난무하는 시절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총과 자비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은총과 자비의 때를 어떻게 활용하고 받아들이는가가 관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다가 왔습니다. 밤이 거의 새어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로마 13.11-12-

일찌기 돈 보스코 성인은 목시중에 풍랑에 시달리는 배(교회)를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두 기둥을 예견했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인 성체’ 와 ‘우리의 도움인 성모’ 였습니다. 여러 가지 도전과 유혹이 끊이지 않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완덕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는 것은 성체신심과 성모신심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뒤섞여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오늘날 가톨릭을 가톨릭 다운 신앙으로 이끌어 주는 것은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신심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성체 안에 참으로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완전한 봉헌의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길은 티없으신 성모성심을 통한 완전한 봉헌의 삶입니다.

### (1) 봉헌의 의미

봉헌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느님께 대한 흠숭입니다. 인간

### (2) MEDJUGORJE

은 봉헌을 통해 하느님의 최상 주권을 인정하고, 하느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며,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죄에 대한 속죄의 행위로서 하느님께 어떤 예물을 봉헌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인들의 삶은 바로 이 봉헌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곡식이나 양, 염소, 비둘기 등 동물을 제물로 바쳐 죄를 씻고 성화되고자 했으며 하느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느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당신 자신을 아버지 하느님께 봉헌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봉헌의 의미를 가장 충만히 채우셨고 봉헌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성모님 또한 “이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함으로써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자신을 봉헌 하셨습니다. 봉헌의 대상은 오직 하느님 뿐이십니다. 성모님께 봉헌 한다는 말은 타당하며 무슨 의미인가? 몽포르의 루도비꼬 성인(1673-1716) 은, 하느님께 봉헌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뛰어난 주형이며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님을 통해서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성모님께 봉헌하는 것은 성모님의 손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께 봉헌되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가장 완전하고 안전하며 빠른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완덕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과 일치하고 그분께 봉헌되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심 중에서 가장 완전한 신심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따르며, 그분과 일치하고 그분께 자신을 봉헌하는 신심입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마리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친밀하게 일치 하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신심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예수님께 가장 잘 봉헌하게 하고 친밀하게 일치시키는 신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 대한 온전한 신심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께 봉헌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도 봉헌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완전한 봉헌은 마리아께 전적으로 봉헌하는 것 외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가르치

**그리스도께서도 당신 자신을 아버지 하느님께 봉헌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봉헌의 의미를 가장 충만히 채우셨고  
봉헌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성모님 또한 “이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함으로써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자신을 봉헌 하셨습니다.**

려는 신심으로서, 바꾸어 말하면 세례 때에 발한 서약과 맹세를 갱신하는 것입니다.”

-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120 항 -

**(2) 교회와 봉헌**

1831년 9월 9일 그레고리오 16세 교황은 조선교구 설정에 관한 교서를 이례적으로 성마리아 대성당에서 발표했고 제 2대 조선교구장인 앵베르 주교의 요청에 따라 1841년 8월 22일에는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를 한국 교회의 후보로 정해주셨습니다. 제 4대 조선 교구장 베르뇌 주교는 1861년 10월에 한국의 각 선교지역을 성모님과 관련 된 명칭으로 성모님께 봉헌하였고 제 6대 리델 주교도 1876년 한국을 성모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1954년 성모성년에도 한국교회는 성모님께 봉헌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후보(수호자)가 성모님으로 정해지고 이를 확인하여 성모님의 특별한 전구를 청하는 행위인 성모님께 대한 봉헌은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박해를 극복하고 신앙의 자유를 얻었으며 성모님의 가장 큰 축일인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 성모님은 파티마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 발현하셔서 당신의 티없는 성심께 대한 봉헌을 간곡히 호소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나의 티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일으키기를 원한다. 내 티없는 성심은 너의 피신처가 될 것이며, 너희를 하느님께로 이끌어 가는 길이 될 것이다.” -파티마, 1917.6.13- 이에 따라 1942년 10월 31일 비오 12세 교황은 전세계를 마리아의 티없는 성심께 봉헌하고 1946년에는 파티마의 성모님을 세계의 여왕으로 대관하고 ‘여왕이신 성모 마리아 축일’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청년 시절에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라는 책에서 큰 감회를 받고 자신을 성모님께 봉헌하였으며 이 책에서 ‘온전

히 당신것 (Totus Tuus)’이라는 문장을 뽑아 교황 즉위 시에 모토로 삼으셨습니다. 1984년 3월 25일 전세계 주교들과 뜻을 합하여 소련은 물론 전세계를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께 봉헌하였는데, 그 이후 마침내 소련을 포함하여 여러 나라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1984년 5월 6일 아침에 명동 대성당에서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맞이하여 겨레와 교회를 성모님께 봉헌했고, 2000년 대회를 맞이하여 또다시 세계 교회를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께 봉헌하였습니다.

**(3) 봉헌을 위한 준비**

봉헌은 곧 세례성사의 갱신입니다.

“나는 이 신심이 세례 때 한 약속의 갱신을 뜻한다는 것을 이미 말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세례 전에는 악마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악마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영세 때에 자기 입으로 혹은 대부 대모의 입으로 마귀와 마귀의 행실과 유혹을 끊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 또는 주권자로 삼아 자신을 사랑의 종으로서 완전히 바칠 것을 하느님께 엄숙하게 맹세하였습니다. 마리아께 드리는 완전한 봉헌을 통하여서도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행합니다. 봉헌 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마귀와 세속과 죄악과 자기 자신을 끊어 버리고 우리 자신을 마리아의 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신심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을 때는 다른 사람, 즉 대부 대모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 그래서 대리인에 의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게 되나 이 완전한 봉헌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또 명백하게 마리아의 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바치지 않고 자기 선행의 모든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부 바치지 않으므로 세례 후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이를 적용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보존할 완전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봉헌을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의 손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명백하게 봉헌하고 우리 선행의 모든 가치를 바치게 됩니다.”

- 참된 신심, 126 항 -

이 준비 과정으로 몽포르의 성 루도비꼬는 33일간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시기인 12일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반대되는 세속정신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둘째 시기의 3주 동안의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의 죄를 통회하며, 성모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기 위한 기도와 묵상에 각각 1주일간 씩을 소요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화-조명-일치 라는 삼단계의 완덕에 이르는 정통적인 길을 따르면서도 성모님을 통한 완전한 봉헌으로서의 세례성사의 갱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9일간의 세속정신과 하느님을 떠난 나의 비천한 처지와 상황인식을 통하여 성모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총에 전적으로 응답하고 헌신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4) MEDJUGORJE

## 맺는 말

세속과 육신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나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절감했던 어느 시점에 어떤 신부님의 도움으로 성모님을 통한 봉헌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아 이 과정을 실행하려 했을 때 처음에는 많은 방해와 고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시도 끝에 드디어 33일간의 준비와 봉헌을 끝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친김에 한 번을 더 봉헌하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를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 봉헌하는 것이며 성모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는 가장 빠르고 완전한 지름길로서 성모님께 봉헌됨으로서 성모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모님을 통해 나의 몸과 마음 영신적이며 내적인 재화, 즉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의 모든 공로와 덕과 선행까지도 봉헌하자 예수님을 나의 형님 나의 친구 나의 전부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 몽포르의 성 루도비꼬 전기”, “묵주기도의 비밀”, “마리아를 통해서 성삼위께 봉헌”, “하느님 뜻의 나라 동정 마리아”, “예수님의 눈으로” 등의 책들을 권해 드리면서 참 행복과 완덕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리아와 함께 즐겁게 살고, 마리아와 함께 모든 시련을 견디어 내며, 마리아와 함께 일하고, 마리아와 함께 기도하며, 마리아와 함께 여흥하고, 마리아와 함께 쉬어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라. 그리하여 그대의 팔에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과 마리아와 함께 나자렛에서 살 집을 마련하고,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십자가 곁에 머무르며 그대 자신을 예수와 함께 묻으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마리아와 하늘나라에 오르고, 예수님과 마리아와 함께 살고 죽으라.” -토마스 아 켈피스- **M**

**주교님은 여러 번에 걸쳐 메주고리예를 찾았고  
드디어는 완전히 치유된 아들과 함께 왔었다.  
그는 자신의 교구 사제들에게  
꼭 메주고리예를 방문할 것을 강력하게 권유했다.  
뿐만아니라 교황성하께서도 모두 메주고리예를 방문하라고 말씀하셨다.**

<표지에서 이어지는 내용> 만약에 성체성사가 없는, 가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해성사는 성모님마저 소멸시키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성모님과 제대는 폭풍우 속에서도 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항구이기 때문이다. 매 일상으로부터 성체성사를 분리할 수 없다. 한 영국 성공회 주교님은 월남전에서 다쳐 전신 마비 증세를 보이는 아들을 두고 있었다. 부인과 함께 메주고리예를 찾은 주교님께서는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고 아들의 쾌유를 기도하였다. 이 주교님은 여러 번에 걸쳐 메주고리예를 찾았고 드디어는 완전히 치유된 아들과 함께 왔었다. 그는 자신의 교구 사제들에게 꼭 메주고리예를 방문할 것을 강력하게 권유했다. 뿐만아니라 교황성하께서도 모두 메주고리예를 방문하라고 말씀하셨다. 자신들의 소명을 따라 사는 사제들은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봉헌하였고 그들의 눈물과 십자가와 외로움을 모두 그분께 드린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와의 일치와 거룩함을 통하여 사제들로부터 모두는 선함을 받는 것처럼 아담의 죄로 인해 인류가 죄에 떨어지듯 한 사람을 통해 모두는 악을 접하게 된다. 왜냐하면 사제야말로 성체성사이신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현존하심을 보장받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제들을 사랑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사제는 겸손과 사랑이신 그리스도의 모양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말은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하느님의 말씀과 그분의 강복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교회가 사제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



는다면 어떻게 한 사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을 신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 성모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사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도록 초대한다. 예수께서 당신 제자들과 사도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만약에 사제가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사제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제는 자신들의 고유한 사명을 다할 수 없게 된다. 이렇듯 가정에서 성소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제 없는 본당들과 수도원들은 텅 비어 버리게 된다. 본당 사제 없이 한 본당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단 말인가? 모세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집트로부터 나올 수 있었겠는가? 광야에서 물이 모자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하였는가? 그들이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야훼께서 당신의 예언자에게 “네 지팡이로 단단한 바위를 내리쳐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바위로부터 물이 뿜어져 올라왔다. 야훼께서는 당신의 사제를 통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 예언자를 통해 바다를 열게 하실 수 있으신 이유는 야훼께서는 사제를 통하여 당신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다. 사제는 신적 사랑의 표시이며 당신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표시이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당신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사시는 하느님께 대한 확신이다. 이것이 바로 당신 사도들을 위해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의미이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사제들을 위한 신자들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성모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영혼과 마음에 사제들을 꼭 감싸안도록 가르치신다. **M**



## 메주고리에에 관한 개인적 소견

- 1986년 2월 5일 발간 -



웨인 와이블

루터파 교회의 신자이며 신문사 발행인, 컬럼리스트로 활동하던 웨인 와이블 씨는 성모님께서 발현하고 계신 메주고리에에 관한 비디오 테이프를 보던 중 강한 내적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후 성모님의 발현과 메시지 전파에 헌신하게 되면서 '메주고리에' '선교사명' '메주고리에 추수' 등의 책을 썼으며, 지금까지도 계속 영문판 메주고리에 소식지를 펴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되는 내용은 성모님의 부르심을 받은 웨인 와이블씨가 1985년 12월 4일부터 발간한 타블로이드 요약 판에 게재하였던 기사로서,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머틀비치 지방 신문에 6개월에 걸쳐 개별적으로 발간된 것을 본지에서 계속하여 번역문으로 소개합니다.

<번역 / 조규방 줄리엤타, 그레이트넥 본당>

4부작을 마치면서....

메주고리에에 관한 이야기는 당분간 적지 않으리라고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는 약속을 나 자신에게 했다. 그렇지만 뉴스 전달 형태로 씌어진 칼럼에 나의 소견을 적지 않았다는 데에 생각이 미치자 나는 마음을 바꾸었다. 메주고리에 사건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혹은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일에 코웃음을 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신앙인들도 있을 수 있다. 때로는 자신들의 신앙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기적의 표징과 근거를 찾아 믿으려고 노력하는 나머지 지나친 노력의 희생자가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메주고리에의 기적과 관련하여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는 이상에서 말한 몇 가지 경우 중 한 가지 또는 면 가지가 동시에 해당될 것이다. 여러분은 일상을 훨씬 초월하는 어떤 것을 요구하는 한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이것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한 공산국가의 먼 벽촌의 어린이들에게 나타나고 계시며 이 일이 1981년 6월 24일 이래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들었다. 전세계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신앙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하루 속히 하느님과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다.

나는 어떤 편에 속하느냐고 했을 때에 호기심으로 이 사건을 받아들인 사람 쪽에 속한다. 호기심 때문에 이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기에 알맞은 기사거리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4부작을 준비하고 적어 내려가면서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 버렸다. 적어도 나의 느낌이 그러하였다. 그렇지만 왜 그런 식으로 느끼게 되었는지 그 당시에는 모르고 있었다.

메주고리에의 진짜 기적은 그 곳 주민들이 하느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이고 또한 그 사건을 접한 사람들이 하느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하느님께로 돌아왔다거나, 하느님과 화해하게 되었다거나, 신앙을 새롭게 했다거나 다 같은 말로 사용된 것이다. 이 사건에 뜻하는 바는 신앙의 발견 또는 신앙의 재발견인 것이다. 그냥 단순히 하느님께로 돌아와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매일같이 내 사무실로 4부작 기사를 요청해 온다. 135부가 재발송 되었다. 반신 우표를 동봉하여 자필로 주소를 적은 봉투를 사무실로 보내온 분들이다. 사람들이 친필로 주소를 적고 우표를 동봉하여 보내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에만 국한된 일이다. 4부작에 대한 건의도 상당히 많으며 어디에서건 나를 만나면 사람들은 메주고리에 이야기를 하고 싶어한다. 그



부르심을 받고



들도 한결같이 과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 어떤 일이 메주고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으며 대부분이 의심없이 그 일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중에는, 그 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보람을 느낀다. 나 개인적으로도 그곳에

성모님께서 나타나신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뿐만아니라 나는 금년에 그 곳을 방문할 계획도 세우고 있고 이 사건이 나의 인생에 얼마나 큰 기쁨을 안겨다 주었는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나는 앞으로도 그 일에 관해 조사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곳에 다녀온 사람들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또한 메주고리에 관한 책지도 출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것은 1985년 5월 까지의 상황을 담고 있는 완벽한 최신판이 될 것이다. 나는 언제나 내가 느끼고 믿고 있는 바를 정확히 묘사하려고 애써왔다. 그것이 작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은 내게 좀 이상스럽게 느껴지는 하지만, 어쨌든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그런 기분을 가지게 한다.

메주고리의 최근 소식 -1986년 3월 5일

1981년 6월 24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처음 나타나신 것은 유고슬라비아의 메주고리이라는 한 마을의 포드파라도라는 언덕 위에서 17세의 이반카 이바노코비세치라는 여자 아이가 그 친구와 함께 산보를 하고 있을 때였다. 그 후로 계속해서 거의 매일 이 두 여자아이와 그 친구 네 명에게 동정 마리아께서 정기적으로 나타나고 계시다. 성모님께서 나타나신 횟수

가 2000 번에 이르고 있다. 성모님 발현 역사상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성모님께서서는 10 가지 비밀을 말씀하셨다. 아직 그 내용이 알려진 것은 없으나, 그 중 7 가지만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고 나머지는 어린 목격증인들의 개인적인 사항이거나 메주고리에 지역 주민들에 관한 사항이

였다. 매 번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모님의 주요 메시지는 언제나 같았다. '하느님과 화해하라. 신앙을 굳게 지켜라. 단식해라. 기도해라. 화해하여라.' 라는 말들로 표현되고 있다. 여기서 화평이라 함은 개인적 차원의 평화를 뜻하는 것이므로, 하느님과 개인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평화를 말한다. 현재로서는 성모님께서 4 명의 아이들에게만 매일 나타나 보이신다고 했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장소에 관계없이 성모님께서 발현하신다. 그들의 이름은 비스카, 마리아, 이반 그리고 야콥이다. 미리아나와 이반카 두 처녀는 더 이상 성모님을 뵈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성모님 으로부터 10 가지 비밀을 받고 있었다. 미리아나는 1982년 크리스마스 때에, 이반카는 1985년 5월 6일에 이 비밀들을 받은 후 그때부터 매일 뵈던 성모님은 더 이상 나타나시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성모님은 이반카에게 최초로 발현하신 날을 기념하여 매 년 만나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미리아나는 살아있는 동안 생일날과 곤경에 처할 때는 언제든지 만나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미리아나는 인터뷰에서 성모님께 곤란할 때 나타나셔서 도와준다고 약속한 것은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답하셨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곤란한 경우에 도와주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성모님께서 나에게 미리 알려주신 세계 인



## 부르심을 받고

“앞으로 많은 곤란한 경우가 생겨  
더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성모님께서 나타나시어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뜻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류의 장래에 관한 비밀로 부터 나 자신에게 앞으로 많은 곤란한 경우가 생겨 더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성모님께서 나타나시어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뜻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

미리아나와 이반카는 성모님으로부터 한 조각의 물건을 받았는데 종이 같으나 종이도 아니고 형겅 같기도 한데 형겅은 아니라고 했다. 아이들은 양피지라고 표현했다. 이 양피지에 10가지 비밀과 그 비밀이 일어날 일, 시, 분까지 명확히 적혀 있다. 이 두 목격증인들은 각기 자신들의 비밀에 관한 것만 읽을 수 있을 뿐이다. 미리아나의 어머니가 성모 마리아께서 주신 종이에 적힌 비밀을 읽어보려 했으나 미리아나는 “어머니 이 종이는 오직 저와 이 비밀을 공표할 신부님만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이 종이 같기도 하고 형겅 같기도 한 물질은 불에 타지 않으므로 태워 없앨 수도 없다. 이들 두 목격증인들은 성모님으로부터 각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제 한 사람씩 선택하여 이 비밀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10일

전 사제에게 전하면, 사제는 그 베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3일 전 공표하여 사제가 신자들에게 비밀 내용과 일어날 시기인 일, 시, 분까지 알리고 장소도 명확히 알린 다음, 이 비밀 쪽지를 증인들에게 되돌려 준다. 이렇게 사제는 성모님이 적어주신 10가지의 비밀을 지금 당장 해독할 수는 없고 이 비밀을 일반 신자들에게 공표할 시기가 다가오면 한 가지씩 해독하게 된다는 것이

다. 미리아나는 자신이 선택한 사제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 미리아나에 의하면 성모님께서 선택된 사제를 좋은 사제라고 하시며 만족해 하셨다고 하였다. 미리아나는 자신이 사제를 선택할 당시에 일어난 일들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성모님께서 주신 비밀을 공표할 사제를 선정했을 때 슬라브코(프란치스코회) 신부 (당시 여섯명의 목격자를 영적 지도하신 신부)에게 선정된 신부님 이름을 알려 드렸더니, 그 신부님은 메주고리에 지방과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가까이 있는 신부를 선택하는게 좋겠다고 하시기에 나는 “성모님께서 돌봐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 일이 있던 직후에 1984년 8월 저녁 주교는 블라치 신부를 메주고리예로부터 인사 이동을 단행하여 후임신부를 임명하는데 이 후임신부가 바로 미리아나가 선택한 멀리 계시던 신부님이 새로 이곳 메주고리예로 부임하게 되었다고 했다. 저녁 주교님은 성모님 출현을 믿지 않고있다. 뿐만아니라 성모님 발현이 계속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지하려고 손을 쓰고 있는 주교이다. 미리아나가 이 비밀을 공표할 사제를 선택하여 정해놓은 것은, 첫 번째 비밀이 일어날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이들 비밀들이 하나씩 하나씩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비스카는 6명의 목격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처녀로서 8가지의 비밀만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생활을 그 분이 일러주시는 대로 받아 적었고 이제 그 일은 마쳤다고 한다. 소년과 대뇌 사이에 생긴 수종으로 지난 2년간 무척 고생했는데 자그레브에 살고있는 크로아티아인의 사는 이 수종이 위험한 곳에 위치한 관계로 수술을 못하겠다고 했다. 오후가 되면 통증은 더욱 심해져서 가끔씩은 기절하는 때도 있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 비스카의 작고 간소한 방에 매일 나타나시는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면 정상으로 되돌아오곤 하였다. 메주고리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녀의 친구는



(8) MEDJUGORJE



2001년 제 2차

## 젊은이들을 위한 기초 성령세미나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너희들을 초대한다.”

아래와 같이 성령세미나 일정을 마련하고  
젊은이들을 하느님께로 초대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01년 12월 28일 오후 6시부터  
12월 31일 오후 3시까지
- 장소 : Catholic Conference and pormation center  
109 South Madison, Dallas, TX, 75208  
Tel. 214-943-6585 / 214-943-6587
- 참가자격 : 20대, 30대 청년,  
미혼 및 기혼, 대학생
- 지도 : 정건석(프란치스코) 신부님 외 강사진
- 회비 : \$180 (check : payable to CRSC-SC)  
Walk in \$200
- 보낼곳 : 12711 Melvern Ct. Houston, TX, 77041  
Attn.:Peter
- 접수마감 : 2001년 12월 22일 (선착순 65명)  
신청서 : 별도
- 준비물 : 성서, 묵주, 필기도구  
미사예물, 세면도구
- 연락처 : Peter Chi : 713-466-6957  
Peterchi49@yahoo.com  
Sophia Lee : 713-464-5548  
John Yun : 818-360-1208  
Stephen Chung : 323-734-6520
- 주최 : 중남부 성령쇄신 봉사자 협의회  
협조 : 남가주 청년 봉사회(KYCR)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겠다고 하면서 미국, 스위스, 런던 어느 곳에서든지 상관없이 원하는 곳에서 수술을 받게 해 주겠다고 했지만 비스카는 싫다고 거절했다. “성모님께서서는 하느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내게 이 수종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나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성모님께서 당신을 고려해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요청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녀는 “아니오, 나는 그런 요청을 성모님께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의 딸인 그녀에게 귀족 대접을 하며 병을 고쳐주겠다고 하는 제안을 그녀는 초자연적인 동기로 거절했다. 누가 감히 그녀가 본 성모님을 사기라거나 거짓이나 속임수라고 할 수 있겠는가? 비스카의 인생은 하느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다. 수종으로 끔찍한 고통을 받을 때조차도 그녀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다. 마리아는 9개의 비밀을 받았다. 성모님께서서는 그녀를 통해 매주 목요일마다 메주고리에 교인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녀는 성스러운 분위기를 풍긴다. 이반은 이런 저런 사정으로 신학교에서 두 번이나 실패했지만 아직도 사제가 되고자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어린 증인들 중 제일 나이가 어린 야콥도 이제는 키도 많이 자랐고 내면적으로도 성숙해졌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나이의 어린아이답게 쉬지않고 움직인다. 인터뷰 때에도 빨리 끝내고 나가 놀고싶어 안달이다. 그러다가 심각한 질문이 나오면 곧장 사색하는 젊은이로 변하여 사려깊은 대답을 하곤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입장을 잘 알고 있다. 자신들이 오해받고 비난도 받으며 유명한 신학자, 한스 우르스폰 발타잘이 그의 1984년 12월 12일자로 저녁 주교님께 아이들을 변호하는 편지에서 말했듯이, 더욱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할 사람들조차도 아이들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물론, 성모님께서 하늘의 메시지를 지상으로 전달하는 도구로서 자신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다음 호에 제 7부가 이어집니다.>







## 루가복음 읽기를 위한 길잡이

루가 복음서는 마태오나 마르코에 없는 내용(루가의 특수 자료)을 꽤 많이 담고있어 예수님의 행적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전해줍니다. 특별히 ‘소외받는 이들의 복음서’라 불리는 루가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찬미와 기쁨, 희망과 평화의 분위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 어떤 이야기가 쓰여 있는가?

루가 복음서는 모두 24 장으로, 성서의 사건을 세계사와 연계시켜 보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성서 저자들 중 역사가관이 투철했던 저자는 구원의 역사를 구약시대와 예수님시대, 교회시대로 세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루가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문학성이 뛰어납니다. 특히 예수님의 수태와 탄생, 성장이야기(1,5-2,5),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예화(10,29-37), 잃었던 아들을 되찾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비유(15,11-32), 부자와 라자로의 예화(16,19-31) 등은 루가 복음서에만 들어있는 이야기들로 문학적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루가복음서에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구원의 보편성)이라는 점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같이 어울리시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가가 복음서를 쓸 당시는 교회가 이제 막 뿌리를 내리면서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수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을 보면 기도와 성령이 강조되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과 제자들에게 기도를 권장하시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는 교회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10) MEDJUGORJE

### 누가 썼는가?

2세기 말, 리옹의 주교였던 이레네오의 반이단론과 180년 경 로마에서 작성된 무라토리 경전 목록에는 루가복음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로와 함께 전도여행을 한 의사 루가(골로 4,14) 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전승에 따라 오랜 세월 동안 이 복음서의 저자는 루가라고 생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루가 복음서, 사도행전, 바오로 서간들 사이에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기때문에 오늘날은 이러한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편의상 루가라 부르기로 합니다.

### 누구를 위하여 쓰여졌는가?

저자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지리와 유대교의 관습을 설명하고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그리스어로 바꾼 점 등을 미루어 이 복음서는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집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언제, 어디서 쓰여졌는가?

대략 80 년 경 이스라엘 밖에서 집필되었다고 봅니다.

### 어떤 구조로 쓰여졌는가?

루가 1장 1절~4절(머릿말)

수신인과 선례, 집필동기 등을 책머리에 기록하였습니다.

루가 1장 5절~2장 52절(전사)

예수님의 탄생과 출생 예고과 출생 - 예수님의 탄생예고와 탄생 - 예수님의 소년시절과 같은 일련의 내용들을 통해, 특히 예수님은 요한 세례자보다 훨씬 훌륭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외받는 이들의 복음서’ 라 불리는 루가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찬미와 기쁨, 희망과 평화의 분위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루가 3장1절~4장13절(공생활 준비기)

요한 세례자의 활약상, 예수님의 세례, 족보, 유혹 이야기 등을 통해 예수님 시대를 구원의 시대로 서술합니다.

루가 4장14절~9장50절(갈릴래아 에서의 활동기)

예수님께서 맨 먼저 고향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저자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활 맨 앞에 배치함으로써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처음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들은 그분의 정체를 알려주기 위한 치밀한 계산에 따라 모아진 것들입니다.

루가 9장51절~19장28절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정에서의 활동기)

예수님께서 갈릴래아를 떠나 예루살렘 근처에 도착하실 때까지의 여러 가르침과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가 19장29절~24장53절(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수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며, 부활, 승천하신 때 까지의 일들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성서 읽기표**

- (1) 매 번 읽기 전에 “주의기도, 성모송” 으로 시작기도를 바치며 마칠때는 “영광송” 을 바칩니다.
- (2) 매일 꾸준히 읽습니다. (읽은 날은 Check를 합니다.)
- (3) 기도와 감사의 마음으로 (가능하면)소리내어 읽습니다.
- (4) 그날의 말씀에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 이 있으면 하루의 “화살기도” 로 만들어 바칩니다. **M**

**이달의 성서 읽기표**

날짜	요일	장 절	check
12/15	토	루가복음 1,1-38	
16	일	1,39-80	
17	월	2,1-38	
18	화	2,39-3,18	
19	수	3,19-4,19	
20	목	4,20-5,11	
21	금	5,12-39	
22	토	6,1-26	
23	일	6,27-49	
24	월	7,1-35	
25	화	7,36-8,10	
26	수	8,11-39	
27	목	8,40-9,17	
28	금	9,18-45	
29	토	9,46-10,16	
30	일	10,17-11,4	
1/1	월	11,5-36	
2	화	11,37-12,59	
3	수	13,1-35	
4	목	14,1-35	
5	금	15,1-16,31	
6	토	17,1-37	
7	일	18,1-43	
8	월	19,1-48	
9	화	20,1-47	
10	수	21,1-38	
11	목	22,1-71	
12	금	23,1-56	
13	토	24,1-53	

읽기표 대로 성서 쓰기를 해도 좋습니다.



## 니콜라(Nicola)의 편지

1996년 1월 16일

엘비라 수녀님,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오랫동안 수녀님께 말씀드리려고 별러 왔습니다. 나는 그분께로부터 너무나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 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 때문에 수녀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아 수녀님께서도 당신의 삶을 바치셨지요. 수녀님은 악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기 위해 희생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수녀님과 수녀님께서 드러주신 기도에 감사를 드려야합니다. 엘비라 수녀님, 나도 또한 예수님께 저의 삶을 온전히 바쳤습니 다.

2년전 1월, 영적인 성장에 대한 갈망이 제 안에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순결하고 가난하며 순명하는 삶을 사는데에 대한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년후, 나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저녁 혼자 기도를 드리던 중, 하느님께 나를 봉헌했고 하느님께서 받아 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모든 가난과 인간의 나약함 까지도 .... 지금 나는 하느님을 아주 가까이 느끼고 있고 내 안에 하느님의 현존을 느낍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분의 도움을 느끼며 특히 내 고통이 심해지고 있는 지금, 병상에서 수녀님께 편지를 쓰고있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현존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의 가장 큰 소원은 내가 하느님의 손에 든 연장이 되고싶은 것입



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혼신을 다해 하느님을 위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육체적인 힘으로도 말입니다. 그러나 수녀님도 아시다시피 나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언젠가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지금은 하느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기도로 하느님께 바쳐드리고 나의 생각과 고통을 봉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께서는 평화와 평정을 상으로 내게 주셨습니다. 나의 진짜 투병은 병고 안에서의 악과의 싸움인데, 그 악은 내 육체에 대한 잔혹성일수도 있고 아픔과 고통일수도 있고 육체적인 “나”를 부정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력마저 빼앗겨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저의 생명도 빼앗길지 모르지요. 그러나 나의 영혼만은 아닙니다. 내 영혼은 하느님의 소유이니가요. 마음속에서 내가 아무리 악으로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나는 나에게 안정과 평화를 주시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인간’이 악으로부터 오는 고통에 당황하지만 나의 가슴은 그런 생각을 이겨냅니다. (이것은 엘비라 수녀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이 악을 누르는 승리이며 나의 힘으로서가 아니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도구에게 주시는 힘으로서 악과 싸우라고 부르시는 때일 것입니다 .....

니콜라는 마약과 에이즈 중독자로서 의학적으로는 구제 불능의 상태에 있었으나 시나콜로에 들어 오면서 믿음으로 영육간의 치유를 받으며 자기의 고통을 남미의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과 이웃을 위하여 주님과 성모님께 봉헌하는 보속의 삶을 바치며 아름답게 죽어간 우리들의 형제입니다. 이 이야기가 한국어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옥원 자매님과 박 요나, 아녜스 부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책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평화의 모후센터 U.S.A.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Tel. 631-367-6191) 판매 수익금은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쓰여집니다.



## 엘비라 수녀님의 편지



마약과 에이즈에 감염된 젊은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며 그들을 위한 공동체 '시나콜로'를 창설한 엘비라 수녀

사랑하는 니콜라, 하느님의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니콜라를 고맙게 생각합니다. 니콜라의 가슴과 삶을 주님의 사랑과 연민 그리고 평화로 가득 채워주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브라질에 있는 아이들 모두가 그들에게 선물한 니콜라의 “다정하신 동정성모님”의 초상화와

함께 그들의 마음을 다한 사랑으로 당신의 쾌유를 빌며 ‘포옹’을 보냅니다. 니콜라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맡겨 드렸다는 소식에 나는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마음을 편하게 갖는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니콜라의 말대로 하느님께서서는 니콜라를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를 더 잘알고 계시니까요.

니콜라,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물론 들어주리라고 믿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니콜라와 함께 하시며 니콜라의 삶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모든 것을 알고 싶군요. 당신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의 고통, 그 모든 것을 기록하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오직 하느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 기쁨을 맛보도록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니콜라, 따뜻한 포옹을 보내며.....

1996년 1월 29일 엘비라 수녀.

니콜라는 1968년 11월 13일 북이탈리아 아스티(Asti)에 인접한 니자 몬페라토(Nizza Monferrat)에서 태어났습니다. 3남매의 막내로 안젤라와 마리아라고 불리는 두 누나를 가진 외동아들입니다. 아버지 지오바니는 시실리의 젤라 태생이며, 어머니 카타리나는 남이탈리아에 위치한 마태라 태생입니다.

그의 가족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알렉산드리아에서 가까운 아퀴 페르메(Acqui Teme)로 이사를 했습니다. 니콜라는 그곳에서 학교를 다녔고 그 후 공과대학에 들어가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가 14살 때 마약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니콜라가 친구들과 더불어 마약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니콜라는 여러 이유로 건강을 해치게 되었고, 결국 에이즈에 감염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19세 때 건강상태와는 상관없이 건축일에 손을 대었고 그로부터 3년 후에는 집을 떠나 계속해서 마약 중독의 길을 걸었습니다. 1992년 마침내 그는 시나콜로 공동체 재활원을 알게 되었고 같은 해 11월 13일에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기도를 배웠고,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을 배우며 희생과 노동, 그리고 기쁨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 성모님 품에 나를 맡기며...

- VA에서 아네스 -

메주고리예를 가겠다고 신청 했을때 까지만 해도 내가 알고있던 메주고리예는 공산국가 유고슬라비아에 속해있는 작은 마을 여섯 명의 아이들에게 성모님이 발현 하셨다는 정도가 내가 알고있는 메주고리예의 전부였습니다.

내가 처음 메주고리예라는 곳에 대해 들은 것은 아마 10년 전 쯤으로 기억됩니다. 영세 받기 전, 교리받을 당시, 그때만 해도 성모마리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나로서는 메주고리예는 낯선이었고 더군다나 공산국가 유고슬라비아 인데다가 또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곳, 갈수 없는 곳이기에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곳으로 아예 관심밖으로 생각했기에 자연스럽게 내 기억에서 잊혀졌습니다. 그 후로는 메주고리예에 대해 들은 적도,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오월 우연히 평화신문에 “6월 메주고리예 순례 성모님 발현 20주년 기념” 이라고 써 있는 문구와 성모님의 사진이 내 눈에 크게 띄었습니다. 순간, “메주고리예? 언젠가 오래 전에 한번 들어본 이름 같은데...” 하면서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처음 10년전에 들었던 메주고리예를 떠올리면서 왠지 가보고 싶은 충동과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사실 6월달이 우리 부부의 결혼 20주년이 되는 달이었기에 결혼 20주년 기념이 무슨 뜻이 있는 것으로 .... 일정 날짜도 6월 22일에서 7월 1일까지, 마침 아이들이 방학 하자마자인 날짜이기에 나혼자 상상으로 우리 결혼 20주년 기념을 메주고리예로 순례 여행을 하면 좋을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문을 읽자마자 일하고 있는 남편한테 전화로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메주고리예로 성지순례 여행을 가는 계획이 어떡냐고, 아이들도 다 컸고, 마침 방학이니 일주일만

가게일을 아이들에게 맡기고 갔다 왔으면 하는데 어떻게냐고 하며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대답은 단 한마디로 아이들한테는 가게 일을 맡길 수 없고 여름에는 바빠서 안되고 만약 어디를 간다면 겨울에 한가할 때 우선 먼저 한국을 가는 것이 순서라며 가고싶으면 혼자 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풀이 꺾여 마음속으로 세웠던 계획, 모처럼 우리 둘만의 여행이 물거품으로 끝나는 것 같아 마음이 우울해 졌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말도 맞는 말이기엔 더 이상 없던 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루 하루 시간이 가면서 나는 왠지 이번에 꼭 메주고리예를 가봐야 겠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가고싶은 마음 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더러 가야된다, 가라, 하면서 내 마음을 부추기는 강한 충동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편대신 두 딸과 함께 메주고리예 성지순례를 신청했습니다. 또 아이들과 함께 가는것 이라서 아이들한테 좀 더 유익하고 보람된 여행이 되게 해 주고 싶은 마음에 메주고리예 성지 순례가 끝나고 오는 길에 런던과 프랑스 루르드를 들려오는 것을 남그레고리오 형제님께 염치없이 덧붙여 부탁드렸습니다. 정말 내가 공산국가 유고슬라비아 메주고리예를 가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설레임과 부푼 꿈에 젖은 나는 어렸을 적 어디 소풍가기 전날 잠 못이루면서 밤을 꼬박 새웠던것 같은 기분으로 사진찍고, 여권 만들고 준비하느라 왔다 갔다 하루 하루를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권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부터 메주고리예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계속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둘째 아이의 여권을 같은 날 신청 했는데 내 여권은 일주일 후에 집으로 부쳐왔는데 둘째 아이의 여권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둘째 아이의 여권은 오지 않았습니. 며칠 더 기다리다 여권국에 연락을 해 보니 이미 우송을 한 상태에서 중간에 분실이 되었습니다. 메주고리예로 떠나기로 한 바로 전날까지도



여권은 어디로 갔는지 알길이 없었습니다. 처음 성지순례를 신청했을 때 느꼈던 설레임은 어디로 가고 나는 매일 매일을 불안과 초조속에서 일을 손에 잡을 수 없었고 내 머리 속에는 온통 여권 생각만이 가득했으며 우체부가 오는 시간을 서성거리며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가 또 여권이 없음을 확인한 후 허탈감에 빠져 메주고리예를 못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방정맞은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애를 태우다가 메주고리예로 떠나기로 한 바로 전날, 임시로 여권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메주고리예로 떠나는 날 아침 우리는 상쾌하고 들뜬 기분이었고 남편은 우리를 차에 태우고 뉴욕 공항으로 직접 데려다 주기 위해 뉴욕으로 출발했습니다. 오후 7시 30분 비행기 이기에 아침 11시에 여유를 갖고 집에서 떠났습니다. 아이들과 남편이 하는 말이, 뉴욕에서 공항에 도착하면 아마 우리식구가 제일 먼저 도착할꺼야 집에서 뉴욕까지는 5시간 정도 밖에는 안걸리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난은 계속되었습니다. 뉴욕으로 가는 도중에 계속 길이 막혔고 또 뉴욕 근교에 들어서는 순간 길을 잘못 들어 퇴근시간인데다가 차들이 꼼짝을 안하는 길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점점 좁혀오고 그때부터 우리 네 식구는 한마음이 되어 손에 땀을 쥐며 운전하는 남편을 도우면서 가까스로 공항에 도착 했을때는 이미 7시 35분이 조금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헬레벌떡 공항으로 뛰어 들어가 보니, 출구에는 아무도 없고 어떤 형제님 한 분만이 비행기표를 손에 들고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형제님은 우리들 때문에 여기 저기 연락하면서 알아보느라 집에도 못가고 있었습니다. 그 때 공항에서는 비행기를 놓친 상태이고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고마움의 인사도 못드렸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지면을 통해서 그 때 우리들을 위해 수고해 주셨던 형제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비행기는 이미 떠났고 마지막 런턴으로 가는 비행기 한 대가 밤 11시 20분에 떠나는데 그나마 빈자리가 있으

면 다행히 그 비행기를 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천상 뉴욕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떠나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형제님과 남편도 다 집으로 떠났고, 공항에는 아는 사람 한 사람 없이 우리 세 모녀만 남았습니다. 그때의 심정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적막감 속에 머리가 텅 빈 상태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아무 소리도 안들렸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자꾸 주저앉고만 싶은 초조한 모습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의연하게 나의 이러한 모습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마!” 다음 비행기 타고 갈꺼야, 무사히 갈꺼니까 걱정하지마...” 오히려 엄마인 내가 이이들 앞에서 의연하게 행동을 했어야 하는데 반대로 아이들이 나를 위로하고 있었으니, 이런 나의 두 딸이 대견하고 든든해 보였으며 고마웠습니다. 순간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이들과 함께 있으니 괜찮아 두려워 하지 말자 하고 마음을 고쳐 먹고는 우리는 공항 구석진 곳 조용한 곳을 찾아 자리를 잡고 앉아 간절한 마음으로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뉴욕에서 런턴, 런턴에서 스플릿, 스플릿에서 메주고리예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비행기의 빈자리가 나오면 타고가는 식으로 무작정 지루하게 기다려야만 했던 순간을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신 성모님은 매 순간 순간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메주고리예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 함께 해 주셨음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비행기 기내에 자리를 잡고 앉은 그 순간부터 언제 내가 초조해 했고, 불안해 했던가 싶을 정도로 나의 마음은 이상한 기쁨과 평화, 희열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비행기를 타서가 아니고 그냥 내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평화와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벌써 메주고리예에 도착한 사람처럼 내 나름대로 상상을 하면서 메주고리예를 그려 보았습니다. 일행들과 떨어져 따로 가면서 메주고리예라는 것만 알았지 숙소도 이



름도 모르고 가는데 걱정도 안됐습니다. 런던에 도착해서 야 아이들이 엄마 숙소 이름은 알아?하고 물기에 그제서 뉴욕 평화의 모후 센터에 전화를 해서 숙소 이름은 모르고 겨우 숙소의 주인 이름만 알아가지고 떠났습니다. 스플릿에서 메주고리예로 가는데는 택시를 타야 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우리들을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벌써 밤은 깊어 캄캄하고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큰 소리로 메주고리예 메주고리예 하며 택시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참 후에 어떤 젊은 남자가 나의 메주고리예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달려오더니 우리를 택시 있는데로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는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택시 운전수를 따라가 택시를 탔습니다. 그 젊은 택시 운전기사의 눈에는 우리가 이상하게 보였나 봅니다. 그 밤에 겁도 없이 동양여자 셋이 메주고리예를 가기 위해 택시를 탔으니 이상할 수 밖에도. 그 젊은 택시 운전기사는 영어를 조금 했는데 우리한테 물었습니다. “너 무섭지 않니?” 하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 말을 묻느냐”하고 대답을 하면서 물으니까 이곳은 외국인데다가 이 밤에 내가 너희들을 다른 데로 데리고 가도 너희들은 말도 못하고 어디인지 모르는데 나를 어떻게 믿고 겁도 없이 이 택시를 탔느냐 면서 또 무섭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우리들을 꼭 메주고리예로 데려다 줄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제사 젊은 택시 운전기사는 “걱정하지 마라. 메주고리예는 3시간에서 3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며 우리들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운전기사는 미국 노래 팝송을 녹

음한 테이프를 틀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귀에 익은 노래를 들으면서 같이 따라 부르고 우리들은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냈던 사이처럼 지루한 줄 모르고 그 캄캄한 밤을 달렸습니다. 드문 드문 멀리서 또는 가깝게 가정집에서 불을 밝혀주는 불빛과 밤하늘에서 반짝이며 아름다운 빛을 밝혀주는 크고 작은 별빛이 함께 어우러져 우리들을 포근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그 아름다운 별, 큰 별을 한없이 쳐다보며 기쁨에 넘쳐 갔던 메주고리예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메주고리예에 도착하여 쉽게 숙소를 찾은 우리는, 피곤함도 잊고 그저 기쁨에 넘쳐 감사의 기도를 눈물로 바쳤습니다. 메주고리예 그곳은 정말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맨발로 십자가산을 오르는 두 딸을 보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성모님 저 아이들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당신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라며 이곳에 불러주신 성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딸은 떠나기 전에는 파리 여행에 들떠 있었으나 막상 파리에 도착하니 그곳에는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메주고리예를 그리워 하였습니다. “엄마, 나는 유럽 여행보다 메주고리예가 좋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다시 가보고 싶어.” 하며....

집에 돌아온 우리는 성모님의 메시지 대로 살고파서 두 딸과 함께 노력하며 기도로 의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 자신이 얼마나 무관심 속에서 살아 왔는지를 반성하며 내 이웃을 돌아보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대하며 부족한 기도 중에도 저희를 메주고리예로 불러주신 성모님께 감사드리며 더욱더 열심히 하느님 보시기에 예쁜 딸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 주셨고, 또 메주고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배운 것을, 특히 아이들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주신 성모 마리아, 메주고리에서 느꼈던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체험을 사랑이신 성모 어머니는 정말 우리들을 당신의 품 안으로 포근하게 감싸 주신다는 것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하며 하루 하루를 새롭게 새록 새록 되새기면서 성모 마리아의 품안으로 나를 내어 맡겨 드리며 성모 마리아의 메시지를 따라 실천에 옮겨 살고자 노력합니다. 성모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또 아이들과 저에게 특별한 시간을 내어 주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 돌려 드립니다.

M

미네소타 지역  
메주고리에 기도회 소식

미네소타지역 메주고리에 평화의 기도회에서는 본당 신자 30가족이 “메주고리에 소식지” 후원인으로 동참함에 따라 매 달마다 정기적으로 기도회를 갖고 성모님의 메시지를 적극 전파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동 기도회에 관한 문의는 전화 (651)450-7452 최베드로씨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b>후원인 명단</b> : 허울리아나	전마리아	김영웅	김도형
김분다	양헬레나	김규환	주종산
신캐롤라인	정미카엘라	최규선	구주승 <무순>
김줄리아	세라,그래프	백도원	이경희
김루시아	김진희	홍종원	이인석
박세레나	안광숙	최상환	박상빈
박수산나	김카타리나	김진욱	이승화

어머니, 나를 받아주소서

두려움 없이 나를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나를 받아주소서.  
당신은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만큼 그분때문에  
마음을 불태운 이가 어디 있으며,  
당신만큼 그분의 사랑을 아는 자 누구입니까?  
그 누가 당신만큼 그분의 한없는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까?  
당신은 주님의 모든 상처를  
가슴 깊이 간직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이 묶여서 끌려다니실 때  
그분 곁에 계셨습니다.  
당신은 십자가 아래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또한 당신 무릎에  
비통하게 그분을 받아 안으셨습니다.  
그분의 난도질 당한 육신,  
피로 더럽혀지고, 별거벗겨진 육신을  
당신의 사랑스러운 팔안에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나를  
당신 사랑스러운 손에  
두려움 없이 맡기나이다.  
나를 받아주소서.  
당신은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알고 계십니다.

레지나 모스트 O.P.



## 매우 심각한 시기

미국이나 전세계의 지금 이 시기는 매우 심각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성모님의 메시지는 침울하게도 “사람들 마음에 평화는 깃들여 있지 않고 이 세상은 증오심이 지배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한편 교황께서는 1월 24일 아씨시에서 행해질 평화를 위한 세계종교지도자들의 기도 모임에 관해 말씀하시고 12월 14일에 있을 단식에 대해서도 상기 시키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온 인류에게 절실히 필요한 평화, 이 평화라는 크나큰 선물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최근 메사추세츠 주에서 행한 인간복제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기도로 일치해야 합니다. 지난 10월에 성모님께서 “평화가 없는 곳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깨닫기 위하여는 성체 앞에서 장시간 머물러 있는 것도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느님과 ‘두배 아니면 전무(全無)’로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내적 평화를 강화 하든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빛이 되고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께로 두손을 뻗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며 온세상에 평화의 축복을 주시는 평화의 왕께서 오심을 마음 속으로 준비합시다

## 슬라브코 신부님과 9일 기도

많은 사람들이 슬라브코 신부님 기일 기념으로 시작한 구일기도가 지난 11월 24일에 끝났습니다. 그 시간은 많은 은총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산에 모여 기도 하였고 14처 아래, 슬라브코 신부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하느님께 바쳤던 그 장소에 모였으며 지금 그곳에는 하얀 돌위에 동그라한 동판에 슬라브코 신부님의 웃는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날 오후 슬라브코 신부님의 동상이 고아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축성 되었으며 그 자리에서 선견자 마리아는 성모님의 발현을 맞이하였

습니다. 우리의 형제 슬라브코 신부님께서서는 우리와 같은 길을 걸었으며 우리와 같이 기도하고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불완전한 것도 있었지만 그것은 모두 사라지고 이제 그에게는 순수한 사랑만이 남아있습니다. - 메주고리에 뉴스중에서 -

## 아틀란타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의 대림 피정

조지아 아틀란타의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주임신부 제병영)는 12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친 대림절 피정을 ‘메주고리에’ 저자인 웨인 와이블 씨를 강사로 초빙하여 전신자들에게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웨인 와이블 씨는 개신교 신자였던 자신이 성모님의 부르심을 받고 메시지를 전하다가 10년전 12월 8일, 특별한 부르심에 따라 온 가족이 천주교로 개종한 날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러 교우들과 다름없이 똑같은 삶의 십자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상생활과 가족들 간의 시련은 자기에게 예수님이 지고가신 십자가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체성사를 통하여 날마다 영적으로 일치해 주시는 예수님의 현존하심이 있는 천주교의 성사를 통한 축복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 낸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희망과 사랑의 힘을 성모님을 통하여 얻고 있다며 성체성사와 성모님이 계시는 천주교 신자가 된 것에 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월 26일은 6명의 메주고리에 선견자 중의 한 사람인 비스카가 결혼하는 날이라고 하면서 몇 년 전 비스카와 있었던 개인적인 만남에서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되어서 주신 사명을 다 했을 때는 결혼을 할 것이라고 했다는 비스카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메주고리에에서의 발현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하셨던 성모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시작이 있으면 언젠가 끝도 있는 법이라고 하면서 자신도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 축하드려요 !!

백만 불 짜리 전염성 미소를 띄우며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던 비스카가 2002년 1월 26일에 메주고리에 본당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번역 : 평화의 모후센터 장루갈다>



# 2002년 새해의 첫 피정 순례를 로마 와 메주고리에 에서 성모님과 함께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12박 13일)**

- 1월 28일(월) JFK NY, Washington Dulles, Houston TX 출발
- 29일(화) 로마의 Fiumicino 공항 도착, Vatican의 수녀원에서 미사 및 성체조배
- 30일(수) 까따콤베 지하 묘지에서 미사, 성 십자가 성당 및 4대 성전 방문
- 31일(목) Vatican 박물관 및 로마 인근 성지순례
- 2월 1일(금)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기념 성당 등 방문, 성모님 생가 방문  
양코나에서 선박편으로 아드리아해를 건너서,
- 2일(토) 크로아티아의 Split항에 도착, 1700년된 대성당에서 미사 봉헌,  
메주고리에 도착
- 3일(일) 발현산 등정과 청십자가 방문, 주일 미사 및 저녁 예절
- 4일(월) 십자가산 등정(십자가의 길 14처 기도),  
슬라브코 신부님 묘소 및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 방문
- 5일(화) 목격증인 비스카와의 만남, 오아시스 수도원 방문, 저녁 예절
- 6일(수) 기도로 치유되는 전 마약 중독자들의 공동체 방문, 저녁 예절, 성시간.
- 7일(목) 요조 신부님의 치유예절 참석, 티할리나 성당에서 한국어 미사, 성시간.
- 8일(금) 메주고리에 출발, Dubrovnic 도착,  
실반성인의 썩지 않은 유해 성당에서 미사.
- 9일(토) Dubrovnik 출발, 미국 도착

지도 신부 : 정건석 (Austin TX 한인천주교회 주임) 신부

신청 마감 : 2002년 1월 5일

순례 인원 : 30명 선착순

순례 경비 : US \$1,890 NY JFK, Washington Dulles 출발 기준

(국내선 항공료 및 비자신청 수수료 별도)

평화의 모후 센터는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하느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순례만을 하고있기에 일반 관광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한국여권 소지자는 보스니아의 비자를 신청해야 하므로 여권과 여권사진 1매, 영주권 사본 및 신청서를 1월 5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비자 신청료는 \$80(특송 우편료 포함)

신청 및 문의처 :

**평화의 모후 센터 U.S.A.**

남 그레고리오 : Tel(631)367-6191, Fax(631)367-6194

e-mail : gregorynam@hotmail.com

## 평화의 모후 센터 U.S.A.

- 1) 거룩한 공의회는 모든 평신도들이 성령의 움직임에 기꺼이 아낌없는 마음으로 응답하고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을 특별히 긴급하게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호소한다.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교령 33항- 는 말씀에 응답하여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 2)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도 메주고리에라는 작은 산골마을에 매일 발현하고 계시며 매달 25일에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전해 주시는 성모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합니다.
- 3)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서 깊은 체험을 통하여 사랑이 가득한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한 알의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 4)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매달 첫째 토요일에 티없으신 성모 성심에 기도드리며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메주고리에 성지순례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평화의 모후센터 U.S.A.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메주고리에 소식지 후원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절 취 선

## 평화의 모후 센터 U.S.A. 후원금

성모님의 메시지 ‘메주고리에’ 100부면, 100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복음화 운동에 적극 참여 하시고자 하는 한인 가톨릭 공동체 회원을 모집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모후 센터 U.S.A.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운영됩니다.

성명 한글 :	영문 :	세례명 :
주소(주택) :		
전화번호 : 집		직장
소속분당 :		
납입금 종류 :	<input type="checkbox"/> 월후원금 (            )	<input type="checkbox"/> 3개월 (            ) <input type="checkbox"/> 6개월 (            )
	<input type="checkbox"/> 1년 (            )	<input type="checkbox"/> 수시로 (            )
Pay Queen of Peace Center U.S.A. (평화의 모후 센터 U.S.A.)		
보내실 곳 (Mail to) :		
22 Round Swamp Rd. Huntington, NY 11743 / Tel. (631)367-6191 / Fax. (631)367-6194		